**게임 시나리오 구성**

1. 배경 소개 : 어둠에 휩싸인 고대 동굴에서 눈을 뜬 플레이어, 빛을 따라 동굴을 벗어나면 자연에 둘러싸인 에버그린 마을이 나타난다. 이 마을은 한때 번성했던 숲의 심장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숲과 공존하며 살아간다. 최근 야생 동물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수확이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주민들은 전설 속에 잠든 고대 용이 깨어날 것이라며 두려워한다.
2. 캐릭터 소개

에단 : 온화한 마을 지도자. 플레이어에게 게임의 전반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전달한다

리아 : 까칠한 전직 용병. 플레이어에게 전투와 사냥을 가르친다

에일라 : 상냥한 연금술사. 자원 채집과 포션 제작을 가르친다

토르 : 호탕한 대장장이. 전리품으로 무기와 장비를 만들어준다

1. 시나리오 전개
2. 프롤로그

동굴에서 깨어남 → 동굴 탈출 → 에단과의 만남 → 에버그린 마을로 이동

1. 조작법 학습 및 기초 훈련

리아를 통해 전투 훈련 → 몬스터 사냥 및 전리품 획득

1. 자원 채집 및 연금술 습득

에일라를 통해 자원 채집 및 포션 제작 학습

1. 장비 강화 및 퀘스트 진행

토르에게 전리품을 이용해 장비 강화

1. 스토리 진행 및 최종 레이드 준비

용의 위협 증가 → 더 강력한 몬스터 출몰 → 장비 및 포션 최종 강화

1. 용과의 레이드

용의 둥지로 이동 → 용과의 전투 진행 → 용 처치

1. 엔딩

용 처치 후 마을로 돌아와 엔딩

**대사 스크립트**

(캐릭터소개 / 대화주제 / 대화형식 / 대화구성 / 대사표기 유의)

**[1] 프롤로그**

배경 : 동굴에서 깨어난 플레이어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동굴 밖을 향해 걷는다. 동굴 입구에서 마을 지도자 ‘에단’을 마주치고, 플레이어를 에버그린 마을로 데려간다. ‘에단’은 플레이어가 오랜 전설에 나오는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며, 마을이 처한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권유한다.

플레이어가 동굴 밖을 빠져나오고 눈앞에 세상이 펼쳐진다

에단 : 지금 동굴에서 걸어나오신 건가요?

플레이어 : (끄덕) / 네…

에단 : 이럴 수가… 그대는 오랜 전설에 나오는 ‘구원자’가 틀림없어요!

플레이어 : 구원자?

에단 : 한때 저의 조상들은 고대의 용과 싸우다 패배했지만, 동굴에서 나타난 구원자가 용을 물리칠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단 : 최근 숲의 야생 동물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마을 곳곳에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대의 용이 다시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라면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플레이어 : (끄덕)

**[2] 조작법 학습 및 기초 훈련**

배경 : ‘에단’이 소개한 전직 용병 ‘리아’를 통해 기본적인 전투 및 채집 방법을 배운다. 플레이어는 마을 주변 숲으로 이동하며 채집물을 얻고, 발견한 몬스터들을 처치하여 전리품을 얻는다.

플레이어와 에단이 마을에 도착한다

에단: 그대는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곳, 우리 마을에서 그대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채집과 전투에 능숙하니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리아가 플레이어 가까이로 걸어온다

리아: 반가워, 내가 리아야. 용병으로써 마을을 지키다가 지금은 채집과 사냥을 담당하고 있지. 내가 그대를 도와줄 테니, 잘 따라오도록 해.

플레이어: (끄덕)

리아: 자, 먼저 이 마을 주변의 숲으로 나가 채집을 해보는거야. 나를 따라와.

리아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플레이어는 이를 따라간다.

(일정거리 이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리아는 움직임을 멈춘다)

리아: 저기 보이는 약초와 나무 열매들, 저걸 모아봐.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자원이야. 채집물로 가서 채집키인 'F'를 누르면 돼.

플레이어는 인근의 채집물들을 채집한다

리아: 좋아, 잘 했어. 이제는 몬스터와 맞서 싸울 차례야. 저 앞에 작은 야생 동물이 보이지? 저건 그리 위협적이지 않지만, 싸움에 익숙해져야 해. 검을 사용해서 공격해봐. 마우스 좌클릭으로 공격할 수 있어. 전투 후 전리품을 수집하는 것도 잊지마.

플레이어는 인근의 몬스터를 사냥하고 전리품을 수집한다

리아: 훌륭해. 채집과 전투는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 계속 연습하고 익히다 보면, ~~너라면~~ 분명히 이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이제 에단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러 가도록 해.

플레이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로 돌아간다)

**[3] 포션 제작법 습득**

배경 : 사냥을 끝낸 후 돌아온 플레이어는 마을 안의 부상자들과 이를 돕는 연금술사 ‘에일라’를 마주한다. 몬스터의 습격을 받은 사람들의 부상을 치료할 회복약의 특정 재료 수급을 부탁받고, 대가로 포션 제작법을 배우고 포션을 지급받는다.

플레이어가 마을 안으로 접근 시 카메라 고정

플레이어: (마을 안으로 들어서며 부상자들을 발견한다)

플레이어에게 에일라가 다가온다

에일라: 아, 당신이 전설의 용사님이시군요. 저는 이 마을의 연금술사, 에일라예요. 마침 잘 오셨어요. 마을이 몬스터의 습격을 받아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달빛 허브, 에버그린 데이지, 바람꽃을 가져다주실 수 있나요?

플레이어는 필요한 채집물을 채집하여 에일라에게 건넨다

(필요한 채집물은 앞선 리아와의 퀘스트를 통해 일정량이 모아져있을 예정)

에일라: 정말 고마워요. 이걸로정도면 충분한 양의 회복약을 만들 수 있겠어요. 도와주신 답례로 포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연금술 방법을 알려주고, 플레이어가 포션을 제작한다

에일라: 잘했어요! 이 포션은 전투 중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거예요. 재료를 구하면 언제든 포션을 만들어도 돼요.

플레이어: 고마워요, 에일라.

에일라: 맞다! 아까 대장장이 '토르'께서 당신을 찾았어요. 그분에게 가보시겠어요?

**[4] 장비 강화**

배경 : 에일라의 소개로 플레이어는 마을의 대장장이 '토르'를 찾아간다. 토르는 마을을 위협하는 대형 몬스터를 처치하면 얻는 전리품으로 장비를 제작해주겠다고 제안한다.

플레이어는 대장간으로 이동 후 토르를 만난다

토르: 오, 에일라가 보낸 사람이로군. 내가 마을의 대장장이, 토르다. 무기와 갑옷을 만드는 일이라면 내가 최고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불렀네.

플레이어: 어떤 일인가요?

토르: 마을 주변에 있는 대형 몬스터들이 문제야. 그놈들이 마을을 위협하고 있어.

플레이어: 어떤 몬스터를 처치해야 하나요?

토르: 마을 서쪽에 있는 ‘거대 곰’을 알고 있나? 그놈은 거대한 앞발을 휘두르며 마을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어. 그놈을 처치하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그걸로 최강의 장비를 만들어주겠네!

플레이어: (수락한다)

플레이어는 처치하고 전리품을 얻어, 대장간으로 돌아온다

토르: 오오, 이걸 해냈군! 이렇게나 큰 곰의 가죽과 발톱이라니, 정말 대단하군. 조금만 기다리게. 곧 최고의 장비를 만들어주지.

플레이어는 장비 제작 과정을 지켜본다

토르: 자, 이게 바로 너를 위해 만든 장비다. 이걸 착용하면 한층 더 강해질 거야. 용과도 싸울 수 있을 테지.

플레이어: 정말 감사합니다, 토르.

토르: 한층 강해진 용사를 보니 에버그린 마을에도 희망이 보이는구만.

**[5] 최종 결전 준비**

배경 : 플레이어는 마을 주민들을 도우며 강해지게 된다. 숲의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전설 속의 용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고, 플레이어는 마을의 운명을 걸고 최종 결전을 준비한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돈다. 마을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마치 자연이 고통을 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플레이어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무기와 물약을 준비하고 있다.

촌장 에단이 플레이어에게 다가온다.

에단: 그동안 용사님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마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마을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군요.

용이 크게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어둠이 몰려온다

에단: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들리던 그 고대의 용이… 마침내 다시 깨어났습니다. 숲 깊숙한 곳, 그곳에서 잠을 깨고 마을을 공격할 것입니다.

플레이어: 그 용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단: 용은 강력하고 치명적인 상대입니다. 당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싸울 믿을만한 동료 2명이 더 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용의 불길을 견뎌낼 강력한 장비와 회복을 돕는 포션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죠.

플레이어: 알겠어요.

에단: 최후의 전투에 들어가기 전 가장 강력한 장비를 장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션을 최대한 만들어 부상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6] 용과의 레이드**

배경 : 플레이어는 파티를 꾸려 깨어난 용과의 전투를 벌인다.

플레이어는 파티를 맺은 뒤 장비와 물약을 재정비하고 에단에게 말을 건다

에단: 과연 용사님이십니다. 든든한 동료를 구하셨군요. 용이 깨어난 장소는 숲의 오래된 성입니다.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할 마법을 부여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파티원들과 레이드를 진행한다

**[7] 엔딩**

배경 : 용을 처치한 후 에버그린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을 주민들은 플레이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마을 주민들이 용사를 환영하기 위해 광장에 모여있다. 용사가 마을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환호하며 반긴다.

에단 :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에버그린은 언제나 당신의 집이 되어드릴겁니다. 고맙습니다, 용사님.

리아 : 용 한 마리 쯤이야, 내가 가르친 용사라면 당연히 해냈을 거라고 생각했지. 잘 싸웠어. 인정할게.

에일라 : 당신이 없었다면 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용사님. 앞으로도 마을에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저희는 항상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토르 : 하하하! 이봐, 용사! 정말 대단하군! 덕분에 마을도, 주민들도 모두 무사하구만! 주민들이 자네를 위해 성대한 파티도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게나!

토르가 큰 소리로 웃으며 용사의 어깨를 두드리고,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주민들과 함께 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카메라는 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시 평화를 되찾은 에버그린 마을의 전경을 담는다. 마을과 숲이 화면 가득 펼쳐지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